

## Global insurance industry statement on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글로벌 보험산업 성명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남미와 오세아니아에 100개 이상의 선두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선두 기후변화 보험 이니셔티브가 협동하여 서명기관들의 전문성을 성명서에 도입하였다. ClimateWise, The Geneva Association, the Munich Climate Insurance Initiative(이하 MCI)와 UNEP FI 소속 선두 보험사들은, 특히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보험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기후변화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엄청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 과정의 도입과 제한된 정부의 투자로 인한 리스크 측정/감소 등이 있다.

**기**후변화 과학은 지역 사회에 온실가스 배출 둔화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위한 대규모 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보험 해결책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유형적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후 관련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들은 보험 산업의 주주들과 더불어 후생 증진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경우,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된 글로벌 협력 기회와 요구사항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관련 리스크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은 리스크 관리 접근법 중 폭넓은 범위에 속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원 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 리스크 관리:** 특히 리스크와 취약성 평가 영역, 리스크의 가격 측정, 리스크 감축과 리스크 이전 활동의 설계 등에서의 전문성 보유
- **적응 솔루션 도출:** 적응 수용력의 확산 및 탄력적인 조치의 효율적인 비용의 권고를 통한 적응 조치의 우선순위화
- **손실 저감 방안 제공:** 경제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알리고 리스크 저감 옵션에 대해 자문하고 손실 저감을 위한 보험 옵션 제공
-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인체 건강, 농작물 수확 및 동물 질병과 같은 기후와 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리스크를 다루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
- **보험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다수 보험 산업 주주들 - 정부와 규제기관, 의뢰인과 동업자, 사업과 산업, 사회와 학계 내 다양한 보험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포함 - 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사회의 적응 요구 및 성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산업 기후변화 적응의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 확대

국제 기후 협상가와 정부들은 보험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들은 보험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특히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리스크의 특성 및 범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2005년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에서 나온 책무의 이행을 위해 정부들은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수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손실 예방과 리스크 전가 조치들을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지속적인 실패는 잠재적인 생명의 손실, 영구적인 빈곤의 올가미, 대규모 이주와 광범위한 질병 확산 등의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고 보험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지원 및 적용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의 리스크 관리, 손실 예방 및 리스크 전가를 통한 적응 노력을 촉진시키자는 제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적응 협상 문서 8번째 단락의 내용에 대한 고려:

- a. "조기 경보 시스템, 리스크 평가와 보험 메커니즘의 관리/공유/전가 내용을 담고 있는 Hyogo Framework for Action\*을 고려한 기후변화 관련 재해 리스크 저감 전략의 개선... 현지, 국가, 소구역과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역효과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타격에 대응..."<sup>1</sup>
- b. "당사국 회의 17번째 세션에서 채택하기 위해 손실과 손상에 대응하는 국제 메커니즘의 양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결정"<sup>2</sup>

■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정부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a. 이미 협의된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 제시한 리스크 감축활동의 실천 (i.e.; 리스크 관리 문화, 지역사회 조성, 지역/국가 단위 손실 저감 활동, 기존 구축물의 기후 보강과 적절한 지역제와 구축물의 코드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리스크 담당자의 임명과 같은 모든 리스크/손실 관리에 유형적인 공헌 등)
- b.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 체제와 금융시장 서비스가 모든 사회의 단계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의 조성
- c. 조직적이고 신뢰성 있는 리스크 노출 데이터(과거와 미래)의 투자를 통한 정보 공개
- d. 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및 기후 관련 리스크 저감에 대처하기 위한 소액보험체제와 같은 지역적 민-관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행

개발도상국에 보험 사례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해 이미 시장 메커니즘들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경제/규제적인 체제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의 잠재적인 적응 혜택은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협력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제와 개인 주체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후로부터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보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

\* Hyogo Framework for Action(이하 HFA): 2005년 일본 고베의 수도 효고현에서 진행된 제2차 재해 저감 국제 컨퍼런스에서 정립되었으며 재해로부터의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168개국 공동의 계획을 다루고 있다. HFA는 유엔에서 재해 리스크 저감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해로부터의 탄력성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재해로 인한 손실(생명, 사회, 경제 또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환경 자산의 손실)을 현저히 감축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HFA는 5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해로부터의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과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 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다음 페이지 참고

1 Paragraph 4e of the current draft UNFCCC negotiation text. See UNFCCC (2010) Second iteration of the text to facilitate negotiations prepared by the Chair of the AWG-LCA FCCC/AWGLCA/2010/8. <http://unfccc.int/resource/docs/2010/awglca11/eng/08.pdf>

2 Paragraph 8, Option 1 of the current draft UNFCCC negotiation text. See UNFCCC (2010) Second iteration of the text to facilitate negotiations prepared by the Chair of the AWG-LCA FCCC/AWGLCA/2010/8. <http://unfccc.int/resource/docs/2010/awglca11/eng/08.pdf>

보험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해결책을 제공한 과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The 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CCRIF)는 16개 카리브해 지역의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인한 재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2007년 창립되었으며 2010년 아이티 지진과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참관 정부들을 위해 단기간(23주 이내)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기관은 모수적인(parametric) 메커니즘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측정하며 지정된 모형의 손실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불금을 지불하는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CCRIF는 구성원들의 리스크를 모두 모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 대상이 아닌 재해로부터의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을 상대적으로 적은 프리미엄에 제공하고 있다. CCRIF 구성원들은 각 재해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보험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유연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조: [www.ccrif.org](http://www.ccrif.org).

2. Horn of Africa Risk Transfer for Adaptation(HARITA)는 모수형(parametric) 보험 체계로서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및 북에티오피아 4개 지역 내 농업민들을 위한 농작물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기업에 의해 출시 되었으며 국제 재보험업자가 검토한 본 모형은, 강수량 지표를 이용해 에티오피아 농업민들에게 가뭄을 대비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저감 활동(i.e.; 나무 심기)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감 활동 자체를 화폐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cash for 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취약한 농업민들에게까지 수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HARITA는 보험에 리스크 저감과 신용 공급을 통합시켜 가장 취약한 농업민들에게 리스크 저감 활동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불금이 없더라도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사업에의 정부의 투자는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며 이와 함께 2011년에는 티그레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6백만 명의 농업민들은 테프(teff)를 수확하고 있으며 후원자들은 밀, 수수와 같은 기타 농작물도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확장해 나가고 있다.

참조: [www.oxfamamerica.org/articles/weather-insurance-offers-ethiopianfarmers-hope-despite-drought](http://www.oxfamamerica.org/articles/weather-insurance-offers-ethiopianfarmers-hope-despite-drought).

3. 몽골에 위치한 세계은행과 기타 기관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과 리스크 준비 태세, 보충 급수의 접근 가능성, 방목지 사용의 조직화와 갈등 관리를 포함한 목가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다루기 위해 개발중인 지속가능 생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유목민 대상의 소액금융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 투자 지역 사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표 기반 소액 보험은 관리비를 줄여 가격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액 보험과 몽골의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체제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개입은 유목민들의 기후 또는 기후와 무관한 위험으로부터의 취약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지 민간 보험사와 은행들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몽골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본 보험체제는 소규모 가축 사망을 보장해 주는 가정 단위의 가축 사망 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공한다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 보험 시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손실로부터의 보호 및 정부 재정의 손실과 손상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참여하는 유목민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혹독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가축 사망률이 30%에 이르면 지불금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소규모 손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가축 사망의 6%까지 자가보험화 하는 것은 가축 사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강한 인센티브가 되어 자연스러운 리스크 저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보험은 겨울을 수반한 모든 가축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혹독한 겨울로 인한 손실과 다수의 이미 다 자란 가축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다.

참조: [www.globalagrisk.com](http://www.globalagrisk.com).

4. **말라위의 날씨 보험:** 보험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가치는 말라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잘 나타나 있다. 여러 기상 관측소, 세계은행과 World Food Programme의 착수 지원의 적절한 조합으로 가상(건본) 날씨 보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대출과 보험을 묶어 1,000명 가량의 소규모 자작농업민들에게 가뭄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과의 연계성으로 농업민들의 신용 및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이니셔티브에 수반되는 과제는 확장성에 있다: 현재 제도들은 백 또는 천 단위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인도에서 2007년에 출시된 이니셔티브는 70만명의 농업민들에게 보험과 농작물 대출 지원을 함께 제공한 바 있다.

- 볼리비아의 기후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수 기반(index-based) 보험:** 적극적인 리스크 저감과
5. 보험 지표 메커니즘의 인센티브를 통합하는 보험제도가 볼리비아 알티플라노 지역 4개 지방에서 개발되었다. 본 제도의 지표는 기온, 강수량, 습도와 토양의 종류가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농지의 생산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지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최상의 농업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자를 해당 집단 내 농업민들이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농업민들에게 리스크 저감 및 수확량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등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시스템은 선정된 대표자의 가뭄, 폭우, 폭풍과 서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감소 노력을 참조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정된 대표자의 토지는 참고 기준이 되며, 수확량은 생산 기준이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한 역효과(이럴 경우 보험 지불금 제공) 또는 기타 통제 가능한 요소들로 인해 피해를 봤는지를 판단해 주는 지표가 된다. 본 시스템은 농업 관습의 개선과 기상 위험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저감시킴으로써 기존 참고 사례의 실천 및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참조: [www.fundacion-profin.org](http://www.fundacion-profin.org)

#### 본 성명서에 참여한 보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선두적인 보험업체들과 함께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글로벌 협력 단체로 2007년 HRH 웨일즈 왕자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University of Cambridge Programm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의 산하에 있다. 유럽, 남미, 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지역에 ClimateWise Principles를 따르는 40명 이상의 국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홈페이지: [www.climatewise.org.uk](http://www.climatewise.org.uk)

문의: [andrew.voysey@climatewise.org.uk](mailto:andrew.voysey@climatewise.org.uk) | +44 20 7216 7530



보험과 리스크 관리 이슈를 다루는 선두 국제 보험 경제 "think tank"로서 90명의 국제 선두 보험/재보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관은 미래 청구 비용의 범위와 정치/교육/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외부 과제들과 같은 보험 산업 관련 이슈들의 발견 및 분석이라는 연구 목표를 갖고 있다.

홈페이지: [www.genevaassociation.org](http://www.genevaassociation.org)

문의: [anthony.kennaway@genevaassociation.org](mailto:anthony.kennaway@genevaassociation.org) | +41 22 707 6606



#### The Munich Climate Insurance Initiative(MCII)

Framework Convention, 교토의정서와 Bali Action Plan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험업이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2005년 4월 Munich Re에 의해 결성되었다. 본 이니셔티브는 보험업자, 기후변화/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NGO와 정책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반으로 결성되었으며 주로 현장 및 협상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climate-insurance.org](http://www.climate-insurance.org)

문의: [warner@ehs.unu.edu](mailto:warner@ehs.unu.edu) | +49 228 815 0226

UNEP과 글로벌 금융 분야와의 전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UNEP은 200명 가량의 보험/재보험업자, 은행과 투자 기관 및 광범위한 파트너 기관을 기반으로 재정 성과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환경, 사회와 지배구조 이슈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연구, 교육, 행사와 지역 활동을 포함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UNEP FFI는 기관 운영 모든 수준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환경과 지속가능한 관행의 채택을 발견, 지원 및 현실화시키고 있다.

홈페이지: [www.unepfi.org](http://www.unepfi.org)

문의: [butch.bacani@unep.org](mailto:butch.bacani@unep.org) | +41 22 917 8777

[remco.fischer@unep.org](mailto:remco.fischer@unep.org) | +41 22 917 8685

